

사람들은 누구나 가끔 정해진 자신의 울타리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逸脫)을 꿈꾼다. 특히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를 생명으로 삼는 예술가의 파격(破格)에서도 일탈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가출도 일종의 일탈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서울 YMCA가 지난 10월 서울 시내 중·고교생 2천3백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이 바라보는 가출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의하면 '가출 충동'을 느낀 학생이 76.4%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73%)보다 여학생(79%)이 가출에 대한 충동을 더 느끼며, 가출 경험이 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가출하고 싶은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청소년의 첫 가출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국가청소년위원회(지난 8월 가출 실태조사)의 조사 보고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첫 가출 시기는 13세 이하(50.3%)가 가장 많고, 이어 14~16세(39%), 17~19(9.9%)로 나타났다.

첫 가출 때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남자가 12.8세, 여자는 13.4세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런 분별의식이 없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나이에 해당된다.

가출 청소년은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 등의 약



불자 세상보기

김형중 동대부고 교법사 · 문학박사

낮아지는 가출 연령

물 남용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가출 청소년의 성별 발생률이 일반보다 8배까지 높아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나체 사진을 수록한 성매매 유휘광고 전단지까지 가정집까지 배포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전단지 안에는 속삭이듯,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까지 수록되어 절없는 청소년들의 가출과 원조교제를 부추기고 있다. 잠으로 사바세계는 오지경이고 오락약세이다. 마노동굴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 수석 합격한 장승수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에 보면 그의 청소년기의 방황과 가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어차피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으니 좀더 화려하게 놀아보고 싶었다. 술 담배는 기본이고, 여자애들과 어울려 술집과 나이트클럽을 돌아다니거나, 기분 내키면 집이든 학교든 상관없고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전형적인 구제불능 문제의 청소년상 그대로이다. 불교 용어로 말하면 영원히 성불하지 못할 일천제(一闍提)이다. 그러나 성불하지 못할 중생이 없듯이 장승수는 개과천선하고 용맹정진하여 뜻을 성취하였다. 청소년 가출은 우리의 전생 모습이다. 불교의

이상은 출리(出離)이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짐작으로부터의 방하(放下)이다. 그러나 청소년 가출은 목적이 없고, 지혜가 없는 도피행이다. 물을 피하려고 뛰어든 것이 불을 만난 꼴이 바로 가출이다.

청소년은 나라의 희망이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 나라 미래의 모습을 보러거든 청소년의 모습을 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불교의 미래 또한 청소년 포교에 달려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청소년 포교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오늘과 같이 교세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악조건과 음지에서 고통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애정을 가지고 전도했기 때문이다. 비행·사회부적응·가출 청소년을 우리 불교 교단이 보호하고 교화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불법의 본사(本分事)일 뿐만 아니라 전법포교의 길이다. 어린시기에 버려져 한 생각의 실수로 가출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잃어버린 부모를 대신해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처럼 힐끗 안아주자. 그러면 중생이 한 생각 바뀌어 전미개(轉迷開悟)하여 부처가 되듯이 이들 또한 여래의 후예가 되어 참다운 불자로 새로이 태어날 것이다.

불자의 눈

조계종은 한국불교 최대 최고의 종교수행단체이다. 가장 청정해야 할 수행교단이 각종 선거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종교와 사회적 지도자인 스님들의 이러한 참상을 보는 종교와 국민들은 정신적 의지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 조계종에 과연 선거관리법이 있으며 법에 의해 제도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관위의 허점과 질책이 난무하더니 이번 14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에도 역시 심각한 관리부재의 양상을 드러냈다. 가장 청정하고 투명해야 할 승가의 선거가 수행과 포교를 바탕으로 한 종단발전 계획과 비전 제시는 고사하고 금권, 문중, 계파간의 싸움으로 혼탁한 양상을 보여주는데도 어떠한 제재가 없었다니 종단의 미래가 참담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특히 수행하는 스님들의 선거판에 금권이 개러지고 향응이 제공된다는 여론은 너무나 부끄럽다. 선관위에서 못하면 호

선거도 '수행'의 과정

법부에서라도 철저히 조사해 승가의 치부를 드러내고 청정한 승가상을 보호하도록 하는 종단 책임자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지능직 총회의원 선출에 대한 비판 여론이다. 직능직 20명 의원은 전문성을 살리고 전문직 종사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함에도 원칙을 무시한 배정으로 집단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어떠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제도와 법적인 미비점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단 지나고 나면 그 뿐이고 부조리는 다시 거듭되고 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계율을 준수하고 선정과 지혜를 닦으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스님들의 수행정신이다.

계율을 의해서 스님이 되어 수행하며 깨끗하고 정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승단마저 이렇게 추한 꼴을 보이며 제도나 법 타당만 한다면 조계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차체에 종단운영의 일선에 있는 스님들께서는 자각각타하려는 출가정신을 되살려 다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정승가 본연의 기본 정신으로 종단을 이끌어 종교와 국민이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불교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염원한다.

법산(동국대 선학교 교수)

이렇게 들었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들을 위해 보시·애어·이행·동사의 사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은 언젠지 등을 돌릴 것이다." <방등경>

열린우리당은 10·25 재보선에서 0 대 9로 전패(全敗)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4월 총선은 노 대통령을 국회 탄핵의 폭풍 속에서 구해냈지만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재보선에선 모두 졌다. 이번 재보선의 9개 선거구는 중부권과 영·호남에 골고루 걸쳐 있어 전국적으로 실시된 민심 표본조사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지금 민심은 노 정권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고 싶은, 또 무슨 의사표시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임을 넘겨줄 지어볼 수 있다.

북핵 위기가 말해주는 안보 실정과 갑수족 일지리를 줄어든 한 경제 실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임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거듭나야 한다. "선거에 한두번 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억박자로 억주행해선 안된다.

선거는 분명 민심의 외형적인 발로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분노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노 정권은 이제 격려한 자세로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재발해야 할 것이다.

민심은 한번 돌아서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면 국가 경제와 정치가 발전할 수 없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시·애어·이행·동사 등 사십법의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사는 세계와 선제가 사는 세계는 너무 다르니 사십법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러나 그 세계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마음씨가 달라 있다. 등돌린 민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십법을 실천하려는 마음자리부터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김갑일(해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친절한 말 한마디 '포교의 힘'

얼마전 가족과 함께 안성 칠장사에 나들이를 갔다. 은행잎이 노랗노랗 익어가고 있는 가을의 산사는 한껏 운취를 더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새롭게 복원되고 있었고 불사를 준비하는지 잔디가 깔린 마당 한 켠에는 기와들이 쌓여 있었다. 절을 이리 저리 구경하다가 스님이 나오시길래 얼른 합장 인사를 올리고 아이에게도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방에서 나오던 스님은 아이의 인사를 받자마자 잠깐만 기다리라 말씀하시고는 도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책을 한 권 들고 나오셨다. 부모은중경 속 효 이야기 중 울긴 동화책이었다. 아이에게 인사 잘 해서 주는 것이라며 책도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어찌나 감사하던지, 단지 인사 한 번에 그렇게 아이를 위해 선물을 챙겨주는 스님이 고맙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절에 가면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봐도 분척만해서 절에 가기가 참 어색하다는 초발심자들에게 이런 스님의 마음씀씀이는 절에 다시 오고 싶도록 하는 청량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배려해주는 스님의 마음이 결국은 포교를 위한 밑거름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상미(서울시 송파구 성내동)

한글통일법요집 생활화해야

주변의 권유로 절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 생소한 것들이 많아 가끔 어리둥절할 때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문부성이의 경전이다.

절에 가면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한문으로 독송한다. 절에 오래 다닌 것 같은 보살님들은 경전을 보지도 않고 줄줄 외다. 나는 책을 보고 읽지만 따라하기도 차 힘들다. 또 뜻을 새기며 따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주위 보살님들에게 방법을 물어보니 그냥 외우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외우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행한 <한글통일법요집>을 봤다. 한글로 된 경전은 이해하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쉬웠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한글통일법요집>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사회는 한글전용이 대세다. 몇몇 일간지에서 한문을 쓰고 있지만 한문 옆에 한글을 달아주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불교계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라도 <한글통일법요집> 사용을 확산해야 한다. 어려운 한문부성이 경전으로는 이들을 절로 이끌기 어려울 것이다.

김경희(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조광종(경상남도 마산시 회성동)

'진실 혹은 거짓'의 불교 폼파

MBC 프로그램중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것이 있다. 내용이 재미 있어서 자주 시청하는 편인데 최근들어 불교 폼파 사제가 많아져 불교계에서 강력히 항의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중에는 사찰에서 점을 보는 장면이 버젓이 방송되는 가 하면, 사찰이 기복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게 비취지는 장면들이 이따금씩 나와 불자로서 가슴이 아프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대역 연기자들에게 의해 단막극 형식으로 전개된 뒤 출연자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맞추는데 불교 소재는 거의 '거짓 상황'으로 많이 설정된다. 이에 반해 기독교를 소재로 한 내용은 '진실'인 경우가 많다.

물론 방송 프로그램은 창작의 자유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종교적인 소재와 같이 국민의 정서와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신중해야 한다. 신심 깊은 불자들이라면 욕심을 가려 이해하겠지만, 불교를 모르는 일반시청자들은 불교가 마치 주술적이고 거짓이 가득한 종교로 오인할 수도 충분하다. 보리방송모니터링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불교단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강력히 항의할 바이다.

조광종(경상남도 마산시 회성동)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회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부족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모범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모범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시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